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소식지

사명선언문(Mission Statement)

기독교적 진선미의 교육이념을 바탕으로 국가와 인류사회의 발전에 공헌하는 보건의료분야의 탁월한 여성지도자 양성

비전(Vision)

미래의학을 주도하고 세상과 공감하는 의사와 의과학자 양성

교육목표(Goals)

- 첫째,** 의사에게 필수적인 의학 지식과 술기, 효과적인 의사소통능력에 바탕을 둔 기본적인 진료능력을 확립한다.
- 둘째,** 건전한 윤리관, 사회적 책무성, 여성 리더십과 능동적인 평생자기계발 능력을 함께 갖춘 의학전문직업성을 확립한다.
- 셋째,** 비판적 탐구 자세를 통해 다양한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하여 학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능력을 함양한다.
- 넷째,** 이웃과 국가, 나아가 인류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사랑과 섬김의 자세를 함양한다.



02 대학소식

- 신입 학장 인사말
- 의과대학 졸업 50주년 기념행사
- WCC (White Coat Ceremony)

03 학생소식

- 헬렌관 220호
- 동아리소식
- '그리민 (Greemin)'

05 기획기사

- 예방의학교실
- 이향은 교수님 인터뷰

07 동문소식

- 임석아 교수님 인터뷰

08 특집기사

- ESAC강좌 1:임석아 교수님
- ESAC강좌 2:김형석 교수님

10 교수소식

- 정년 퇴임 교수
- 신입 교수
- 교수수상 및 업적

11 의과대학 기금안내

대학소식

26대 이화여대 학장의 첫 번째 편지 "For Good to Great EUMC²"

EUMC²: Ewha Womans University Medical Colledge and
Ewha Womans University Medical Center



안녕하세요? 26대 의과대학 학장으로 봉사하게 된 하은희입니다. 2019년 이화여대와 이화의료원은 의과대학 캠퍼스 이전과 서울병원 개원을 계기로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은 2020년 (재)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새 의학교육 평가(ASK2019)에서 6년 인증을 획득하여 우수함을 이어 가고 있습니다. 이화의료원 또한 목동병원과 서울병원의 양 병원 체제를 구축하였으며, 그 시너지를 살려 국내 최고 수준의 연구중심병원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Good enough EUMC에서 Great EUMC²로 더 나아가기 위해 대내외적으로 도전할 과제가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의료 데이터 기반 인공지능, 바이오·ICT 융합 신기술 등 의학과 의료의 패러다임이 획기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융복합 중개 연구, 개인 맞춤 의학을 추구하는 새로운 의료환경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의학교육 역시 이러한 격변의 시대에 필요한 인재 양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꼭 이루고자 합니다. 첫째, 의과대학이 신촌 캠퍼스와 목동병원, 서울병원과 함께 이화 첨단융복합 MediCluster의 한 축으로 우뚝 서게 하겠습니다. 현시대가 요구하는 융복합 중개연구와 개인 맞춤 의학의 활성화를 위해 교수님들의 연구 교류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 노력과 함께 추진할 사업들을 발굴하겠습니다. 둘째, 의학교육의 수월성을 위하여 우수한 학생 유치와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을 마련하고 훌륭한 융복합 미래 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우수한 학생들이 초지능, 초연결 인공지능 시대의 미래 의료환경에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컴퓨터 의학 연계 역량을 갖추고 동시에 인문학적 소양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이화여대 구성원 및 동문 선생님 그리고 더 나아가 학부모님들과 함께 EUMC² 발전방향에 대해 늘 소통하고 EUMC²의 발전을 위해 큰 귀로 들겠습니다. 그리하여 의과대학이 늘 다시 오시고 싶은 열린 공간, 따뜻한 마음으로 대접받는 본가의 역할을 하겠습니다. 학생들에게는 의학 최고 배움의 전당이 되고, 교수님들에게는 의학 최고 연구의 장이 되며, 동문님들에게는 의학 최고 자존심, 학부모님들에게는 최고 자부심이 되는 Good to Great(G2G) EUMC²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화여대 발전의 중요한 시기에 귀중한 직분을 맡겨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늘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 의학전문대학원장 하은희

의과대학 졸업 50주년 행사 (발전기금 전달식) 개최

5월 28일 오전 20기 졸업생(81년도 졸업)이 졸업 50주년을 맞아 이대 서울병원 및 의과대학을 방문하였다. 20기 졸업생(김경옥, 김영숙, 김화숙, 이원희, 이경혜, 박영숙, 최인숙, 윤석애)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보구녀관에 모여 이곳에서 시작된 이화여대의 설립 정신을 상기하였다. 이후 정성애 교무부학장의 안내 하에 웰에이징 센터, 아프리움, 방주교회, 힐링가든 등을 방문하며 이대 서울병원으로 새롭게 거듭난 이화의료원의 모습을 탐방하였고, 한재진 의과대학장의 안내 하에 자율학습실, 의학도서관, EMSC실 등의 다양한 학습시설과 학생 라운지, 동아리실 등 학생 휴게 공간을 탐방하였다. 병원과 학교 투어 이후 의학관 계림홀에서는 졸업 50주년 기념 발전기금 전달식이 진행되었다. 우소연 기획부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미국 현지에 있는 20기 졸업생 3명(박정옥, 이순희, 장신옥)이 실시간 화상통화 줌(ZOOM)으로 참석하였다. 유경하 의료원장은 병원 소식을, 한재진 의과대학장은 학교 소식을 전하며 여성진료와 교육에 앞장섰던 보구녀관의 설립 이념과 기독교적 진선미의 교육 이념을 지켜나갈 것을 다짐하며 졸업생들의 학교와 후배들을 향한 사랑에 감사의 말을 전했다. 성시열 의대 동창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여성교육의 최전선에 있으며 세상을 변화시켜온 이화를 통해 맺어진 인연의 소중함을 나누었다. 이어 김화숙 20기 졸업생 대표가 한재진 의과대학장에게 기금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성애 교무부학장은 이 기금의 사용 용도로서 2050 Medu-up Project(Medical Education Upgrade Project)를 소개하였다. 20기 졸업생들이 졸업 50주년을 맞아 모금한 발전기금은 의과대학 교육 과정 개편과 시스템 구축 및 의학 교육 전문 교원 양성에 활용될 계획이다. 김화숙 20기 졸업생 대표는 50년 전 열악했던 동대문병원에서 최첨단 시스템을 갖춘 지금의 이대 서울병원으로 변모함에 감격을 전하며 졸업 50년 만에 동지들이 모여 학교와 후배들을 위한 뜻깊은 시간을 갖게 된 것에 감사를 표했다. 또한 발전기금이 훌륭한 계획 아래 활용되어 병원과 학교가 더욱 발전할 것을 당부하였다. 마지막으로 참석한 모든 20기 졸업생들은 서로를 향한 반가움의 회포를 나눴고, 소감과 인사를 전하며 기금 전달식이 마무리되었다. 이후 301호 강의실에서 방역 수칙을 지키며 오찬을 진행하였다.



<의예과 2학년 이은우 기자>

2021학년도 WCC(White Coat Ceremony)

5월 21일 이대 서울병원 의학관 3층 계림홀에서 2021학년도 화이트 코트 세리모니(White Coat Ceremony)가 개최되었다. 화이트 코트 세리모니란 병원으로 임상실습을 가기 전 본과 2학년 학생들에게 의사의 상징인 흰 가운을 입혀주며 의사로서의 정체성을 상징적으로 되새기는 행사로 우리 학교는 2006년도부터 개최해왔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2020년도 행사는 취소되어 2년 만에 재개되었다. 올해 행사는 정부의 방역 지침 준수를 위해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동시에 진행되었다. 계림홀에는 68명의 의학과 2학년 학생들과 내빈 및 교직원만 참석하였으며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으로 동시에 송출되었다. 행사는 양현중 의학 교육부장의 사회로 진행되었고 박희규 교목의 성경봉독 및 기도 후 한재진 의과대학장의 환영사, 유경하 의료 원장의 축사, 성시열 의대 동창회장의 격려사, 최희정 감염 내과 교수의 강연이 이어졌다. 한재진 의과대학장은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하여 선배가 후배들에게 흰 가운을 입혀주는 전통 대신 스스로 착복을 하게 되었는데 이는 의사라는 정체성이 외부에서 주어지는 면도 있지만 개개인이 스스로 정체성을 확립하고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 있을 것이다”라는 환영사를 전했다. 유경하 의료 원장은 축사를 통해 학생들에게 “소외 계층이던 여성과 소아에게 진료받을 권리와 교육받을 권리를 주고자 했던 보구녀관의 설립정신을 이어 받아 의사로서의 책임감을 갖기를 당부한다”라며 병원 역시 학생들을 맞이 위해 철저히 준비할 것을 다짐하였다. 성시열 동창회장은 “생명을 살리는 의사의 소명을 감당할 때 기도로 지혜를 구하며 사랑의 힘을 발휘하기를” 격려했다. 또한 동창회는 “후배와 선배가 함께 기쁨과 슬픔을 나누며 힘을 합치는 든든한 후원자임을 기억할 것”을 당부하였다. 최희정 교수(감염 내과)는 ‘코로나19 팬데믹 최전선에 있는 의사의 임무’를 주제로 한 강연을 통해 현재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 여러 집단과의 협업이 중요하며 의사는 리더로서 역할 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어지는 착복식에서는 한재진 의과대학장, 유경하 의료원장, 성시열 의대 동창회장, 임수미 이대서울병원장, 유재두 이대목동병원장이 단상에 오른 대표 학생 다섯 명에게 화이트코트를 입혀주고 다른 학생들은 각자의 자리에 서서 화이트코트를 동시에 착복했다. 이후 학생 의사 윤리 선언문 선서가 진행되었고 학생들은 “예비 의사로서 환자의 인권과 복지를 무엇보다 중히 여기고 선배 의사의 가르침에 따라 정직하고 성실하게 임상실습에 임할 것”을 선서하였다. 2021년 화이트 코트 세리모니는 의예과장 박영미 교수와 의학과 2학년 이윤진 학생의 피아노 축하 연주, 의예과 학생들의 교가 제창 영상, 박희규 교목의 축도로 마무리되었다. 의학과 2학년 학생들에게는 각자의 이름이 적힌 기도문과 함께 동창회에서 준비한 기념 선물이 증정되었다.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비 의사로서 학업에 열중하고 있는 의학과 2학년 학생 68명은 3학년부터 이대 목동병원과 이대 서울병원의 진료 현장에서 본격적인 임상실습에 들어갈 예정이다.



〈의학과 3학년 방윤지, 의예과 2학년 이은우 기자〉

학생소식



헬렌관 220호, '의예과 학생 라운지'로 거듭난다



▲ 왼쪽부터 의예과 학생회실 리모델링 전·후

의예과 학생회실이었던 헬렌관 220호에 의예과 학생들을 위한 휴식공간인 〈의예과 학생 라운지〉가 조성된다. 신촌 캠퍼스에 의과대학 학생들을 위한 휴게 공간이 부족했던 만큼 많은 기대를 받고 있다. 7월 현재 기초공사와 가구 배치가 완성되어 의예과 행정실은 비품을 추가한 뒤 2학기부터 학생들에게 개방할 예정이다. 목동캠퍼스로 이전하기 전까지 의과대학 강의실이 있었던 헬렌관에 학생 휴게 공간이 마련되는 만큼 더욱 의미 있으리라 기대되는데 신촌 캠퍼스 내 의과대학의 연혁을 살펴보고자 하자. 이화의 의학 교육기관은 최초의 여성 병원이자 의학 교육 기관인 보구녀관에서 시작하여 행림원과 의약대학을 거쳐 1954년 4월 의약대학 의학부에서 의과대학으로 승격되어 완전한 단과대학이 되었다. 1955년 완공된 과학관(Appenzeller Hall, 현 약학관) 내에 의예과 사무실, 해부학 실습실, 학생회실 등이 마련되었으며, 일반생물학 실험실, 교수 연구실 등은 1955년 완공된 학생관에, 본과 1, 2학년 강의실은 1958년 완공된 헬렌관에 마련되었다. 목동캠퍼스가 건설되기 이전에는 의과대학과 기초의학교실은 신촌 캠퍼스에 위치하였고, 임상의학교실은 의료원 부속병원(동대문 부속 병원)에 위치하였으며, 신촌캠퍼스 내에는 학생들을 위한 수업 공간이 여러 건물에 분산되어 있었다. 그 후, 의과대학이 1993년 8월 목동에 새로 건립된 의학연구동으로 이전함에 따라, 종합 의과대학 캠퍼스로 거듭나게 되었다. 2002년에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전환이 결정된 후, 2005년에 학생회실 역시 목동캠퍼스로 이전하면서 신촌캠퍼스 내의 의과대학 공간이 모두 목동캠퍼스로 이전하게 되었다. 이후 2017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체제로 재 전환하기로 확정되었고, 2015학년도부터 의예과 신입생을 선발하게 되었다. 신촌 캠퍼스에서의 의예과 교육을 위하여 2014년 12월에 다시 신촌 캠퍼스에 의예과 전용공간을 확보하게 되었다. 종합 과학관(현대자동차동)에는 의예과 사무실, 의예과장실, 강의실 등이 위치하였고, 헬렌관에 의예과 학생회실을 배정받아 다시금 헬렌관에 의대를 위한 공간이 조성되었다. 헬렌관 학생회실은 리모델링 이전, 중고 비품을 사용하는 등 열악한 환경에 의해 활발하게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가 2020년, 리모델링이 추진됨에 따라 새로운 장소로 자리 잡고 있다. 2020년 12월, 예산안 마련을 시작하여 기초공사에 약 200만원, 가구 구매에 약 300만원 정도의 의과대학 예산이 사용되었으며, 동창회 기부금 약 200만원을 사용하여 비품을 마련할 계획이다. 소파, 콘센트가 구비된 테이블, 냉장고 등이 비치되어 개방 이후 의예과 학생들에게 좋은 쉼터가 될 것이라 예상된다. 의과대학이 독립된 단과대학으로서의 위상을 얻은 이후에 자리 잡았던 헬렌관을 다시 사용하게 된 데에는 의미가 깊다. 선배들이 치열하게 공부하던

학생소식



공간에 동창회 기부금이 활용되어 학생 라운지가 마련된 만큼, 학교 위상을 높이고 학교와 후배들을 사랑하는 선배들의 노고에 학생들이 감사하며 보다 편안한 학교생활을 하게 되길 기대한다.



〈의예과 2학년 이은우 기자〉

동아리소식

이화여대 의과대학 그림 동아리 '그리민(Greemin)'은 코로나로 여가활동을 즐기기 어려운 의과대학 학생들을 위해 방학 중 그림 교실을 열었다.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동아리 회원들을 위해 힘쓰고 있는 그리민 가장 조경은 학생(의학과 2학년)을 만나보았다.

Q 안녕하세요. 그리민 동아리 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그리민은 이화 의대 그림 동아리로 말 그대로 'Greemin' 그림을 그리는 동아리입니다.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는 학생들이 모여 다 같이 일상을 나누며 그림을 그리는 동아리입니다. 그림 동아리는 화가처럼 잘 그려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문의하는 분들도 계신데, 그리민은 그림에 대한 소질이 없어도, 열정과 관심만 있다면 누구나 재밌게 작품을 완성할 수 있는 동아리입니다.

Q 그리민은 어떠한 활동을 하나요?

A 그리민의 행사에는 크게 신입생 환영회, 그림 수업, 겨울 전시회가 있습니다. 그림은 주로 유화를 그리고, 요즘에는 다양한 그림도 그려보고 싶어 하는 회원들이 많아서 동양화나 수채화를 그리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보통 여름방학과 겨울 방학에 전공 선생님과 함께하는 그림 수업을 통해 드로잉 기초를 다지고 그림을 그리며 완성된 작품들을 겨울 방학에 전시합니다.

Q 코로나로 동아리 활동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리민은 이번 방학 중에 동아리 모임을 가진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계획하게 되었나요?

A 이번 동아리 활동은 어쩌면 마지막이자 첫 동아리 활동이 될 수도 있는 회원들을 위해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18학번 편입생 회원들이나 20학번 회원들은 본과에 와서 아무런 동아리 활동도 해보지 못하고 동아리가 마무리되거나 예과 때 동아리 활동 한번 해보지 못하고 본과에 온다고 생각하니 너무 안타까웠고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동아리 활동을 경험해봤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커 동아리 활동 재개를 생각했습니다. 대

부분의 회원들도 동아리 활동을 무척 하고 싶어 하는 분위기여서 이번 방학에는 동아리 활동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학장님과의 회의에서도 코로나 사태가 길어짐에 따라 방역 수칙을 지키며 활동 가능한 동아리들은 활동 허가를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게도 이렇게 방학 그림 수업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계획 단계에서와 회원 참여 조사 때에도 많은 회원들이 동아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어하고 싶은 드로잉에 열정을 보여서 더 확고하게 수업 진행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코로나로 인해 전처럼 자유로운 활동을 하지는 못하지만, 한 수업당 인원수를 4인 이하로 제한하고 모두 정해진 날짜에 한 번씩만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진행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세운 뒤에는 학교의 허가를 받고 수업을 진행하며 손소독과 마스크, 환기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있습니다. 원데이 클래스처럼 진행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참여한 학생들은 모두 오랜만의 동아리 활동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동아리 지도 교수님께서도 학생들이 제대로 동아리 활동을 하지 못해 삶의 큰 활력을 잃은 것 같으며 안타까워하셨는데 이번 드로잉 수업을 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니 다들 즐겁게 활동하면 좋겠다고 응원해 주셨습니다.

Q 그리민 활동은 학생들에게 어떤 의미인가요?

A 그리민의 가장 큰 의미는 '힐링'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쁜 의대 생활 속에서도 그림을 그리며 심을 얻을 수 있고, 작품을 완성하며 완성된 그림의 전시회를 통해 보람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그리민은 모든 수업과 전시회의 참여는 자율참여제입니다. 코로나 상황인지라 예외적으로 날짜를 정해서 진행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활동이 자율 참여이기에 그림을 그리며 휴식을 취하고 마음의 안정을 시키고 싶을 때 언제든지 편하게 찾아올 수 있는 동아리입니다.

Q 코로나 시국에 이화여대 학생들 또는 자신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A 코로나 때문에 학교생활도, 동아리 활동도 모두 쉽지 않고 계속 길어지는 상황에 모두들 지치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도 모두들 지금까지 해오신 것처럼 잘 이겨내면 결국엔 마스크를 벗고 웃으며 다 같이 만날 날이 머지않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 같이 건강하시고, 웃으며 만나게 될 그때를 기다리겠습니다!



〈의학과 3학년 방윤지 기자〉

기획기사 | 본교 예방의학교실, 'E-보건학종합학술대회' 수상 인터뷰



▲ 본교 예방의학교실 박혜숙 교수님, 김의정, 최은정, 박현진 학생

대한보건협회에서 주관한 2021년도 제46회 'E-보건학종합학술대회' 포스터부문에서 본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박혜숙 교수님의 지도하에 김의정, 최은정, 박현진 학생이 "출생요인과 청소년기 대사 위험의 연관성에 미치는 성장요인 및 염증수준의 매개효과: 이화 출생코hort 기반"에 대해 발표하여 질병관리청장상을 수상하였다. '이화영아 성장코hort'를 구축하여 많은 연구들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는 예방의학교실을 방문하여 수상자들과의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Q 안녕하세요. 이번에 대한보건협회에서 "Better Health for All: 팬데믹과 공중보건시스템의 뉴패러다임"의 주제로 학술대회를 주최하였는데요, 최근 팬데믹 상황과 관련하여 어떤 주제들이 새롭게 논의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A (박혜숙 교수님) 대한보건학회 산하의 25개 학회들이 공동으로 주최하는데요, 이번에는 코로나19의 앞으로의 변화를 더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는데 포스트 코로나-19전략, 코로나-19에 대한 역학적 이해와 대응 등을 주제로 다루었습니다. 이번에 Healthplan 2030이 수립되었는데 주요 목표가 취약계층의 건강수명, 건강형평성 제고입니다.

Q 이번 춘계학술대회는 4월 7일 보건의 날을 맞아 매년 개최하는 규모가 큰 대회인데, 질병관리청장상 수상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수상 소감 한마디씩 부탁드립니다.

A (박혜숙 교수님) 무엇보다 연구의 결실을 보여주기에 때문에 매우 기쁜 일이고요, 이렇게 큰 규모의 장에서 상을 수상했다는 것 자체가 우리 학생들의 연구 능력과 노력을 보여주는 의미가 있어서 더 기쁩니다. 또, 기존에 '이화영아 성장코hort'를 가지고 연구 당시 13~14세때 follow up을 했다면, 올해가 만 19세 follow up을 하는 첫해입니다. 현재에도 추적관찰을 진행중이라는 것인데, 연구대상자들에 대한 감사함을 아마 학생들이 많이 느끼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김의정 학생) 많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어 감사했고, 코hort라는 것 자체가 많은 선생님들과 교수님들의 협력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인데 이를 활용할 수 있어 매우 감사한 기회였습니다.

(박현진 학생) 앞에서 말씀하신대로 다른 선생님들이 열심히 해주셨고 코hort 데이터 자체가 많은 분들의 노고가 담겨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최은정 학생) 저는 고학년 초등학생들에 대해서 follow up을 진행했는데,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분들의 노고와, 대상자분들의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음에 큰 감사함을 느낄 수 있었고 덕분에 좋은 연구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Q 이번 연구에 대한 간략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또, '이화영아 성장코hort'를 맡으면서 오랫동안 추적 관찰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은 없으셨는지 궁금합니다.

A (김의정 학생) 아이들이 태내에 있고 출생을 하면서부터 나타나는 특성들이 청소년기의 대사질환이나 감수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기 위한 연구였고요, 성장요인이 그 기전 속에서 어떻게 매개가 되고, 염증수준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살펴보았습니다.

(박혜숙 교수님) 의대 교육과정에도 '출생과 성장' 수업이 있는데, 출생 과정이 이후 성인기 질환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 예전에는 가설이었지만 연구자들이 출생 체중이 낮은 그룹이 더 사망률이 높다는 사실을 알아낸 후, 기전을 비롯하여 전향적 코hort연구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저체중 출생아가 성인기 질환의 위험요인이라는 것, 따라잡기 성장을 하는 경우 비만, 당뇨 등이 증가한다는 것, 염증 지표가 연관되어 있다는 가설 등 다양한 가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연구는 이러한 요인들이 직접, 간접적으로 어떻게 매개 되는지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 것입니다. 출생시부터 13~15세까지 여러 번에 걸쳐 측정된 자료로 대사증후군 점수를 내고, 출생요인, 비만, 염증 수치 등을 바탕으로 모델을 구축하여 분석을 했습니다. 쉽지 않은 연구였지만 이해아 교수님, 김영주 교수님, 김혜순 교수님, 홍영선 교수님께서 방법론적인 부분 및 대사 질환에 대해 많은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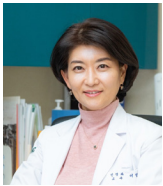
Q 연구 과정에서 산부인과, 내과, 소아 청소년과 등 다양한 분야와 협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러한 협업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궁금합니다.

A (박혜숙 교수님) 저희는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신 좋은 연구자 선생님들을 많이 만난 것이 행운이었던 것 같습니다. 먼저 하은희 교수님께서 산모의 환경을, 김영주 교수님께서 산모의 영양 및 식생활 지표에, 이화영 교수님께서 태반 관련 기전에 관심이 많으셨고요. 또 소아과 박은애 교수님, 조수진 교수님, 김혜순 교수님께서도 많은 도움을 주셨고, 정신과 김의정 교수님께서도 신경학적 발달 부분에서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연구윤리가 강조되고 있는데, 부모님들께서 이 연구의 결과가 사회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이해해주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셨습니다. 처음 연구설계 당시에는 대상자 설정에 조금 어려움이 있어 잠시 걱정도 했었지만 올해도 대상자분들 중 30명이 병원에 방문을 해주시기로 해서 굉장히 추적이 잘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20년 장기간 추적을 한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입니다. 저희 코hort 이름이 "EWHa birth and growth cohort"인데 이번에 SCIE에 등재가 된 한국역학회지에 코hort 프로파일란에 이화영아 성장코hort가 소개되었다는 점이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인터뷰: 의학과 1학년 권나현

글: 의학과 3학년 방윤지, 의학과 1학년 권나현 기자〉

기획기사 | 이화여대 이향운 교수님 인터뷰



코로나 시국이 장기화되면서 아시아인에 대한 차별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소외도 극심해지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노력중인데, 이화여대에는 이미 이전부터 과학기술계 여성과 소수민족 소외문제에 관심을 갖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노력해온 교수님이 있다. 대한신경학회 등의 학술위원회 이사를 역임하고, 국제뇌전증연맹 교육위원회 등 다양한 국제학회의 태스크포스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최근 세계적인 국제학술지 <Neuroimage> 4월호에 연구가 게재된 의학과 신경과학교실 이향운 교수님을 인터뷰하였다.

Q 교수님, 안녕하세요. 교수님 소개와 최근 근황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A 네, 안녕하세요. 저는 1993년 이화여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2003년부터 이화여대 신경과학교실에서 수면장애와 뇌전증 등 만성 뇌질환의 치료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이향운입니다. 뇌기능이상과 수면과 뇌기능 간 상호관계를 이해하기 위한 멀티모달 뇌파-뇌영상 생체신호기반 진단, 뇌기능 조절과 치료를 위한 신경조절치료기법 연구와 인공지능기반 의료기기 개발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의료현장의 미해결난제를 극복할 기술 개발을 위해 “이화메디테크 연구소”를 개설하고 연구소장으로 의과대학과 엘텍공과대학의 협업을 도모하여 지난 2018년부터 해마다 “이화메디테크포럼”을 리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화의료원에서는 융합의학연구위원으로 임상-기초연구 및 기업 연계 산·학·연·병원간 융합연구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Q 교수님께서 뇌기능에 대해 연구하시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A 처음 의학 분야에 발을 디딜 무렵에는 뇌전증과 같은 난치성 뇌질환에 관심을 가지고 국가연구비로 미국 존스홉킨스대학 박사후연구원 및 미국정부의 NIH grant로 미국 국립보건원 NIH 산하 NINDS에서 뇌전증 관련 연구를 하였습니다. 또한 임상현장에서 환자를 대하다 보니 수면 질환이 매우 흔하고 다양하며 건강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데도 치료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고 의학과 PhD 연구 중에는 생체시계를 담당하는 시상하부의 조절 기능에 대한 기초연구도 함께 수행하였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뇌질환과 수면 장애가 뇌기능에 특이적인 이상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본격적으로 뇌기능에 대한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멀티모달 뇌파 및 뇌영상 생체신호를 정량적으로 분석하는 ‘인공지능/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사용하면 정상적인 뇌기능을 수행하는데 중점적으로 관여하는 뇌신경 네트워크의 위치와 연결성을 이해할 수 있으며, 뇌기능 이상이 동반될 때 나타나는 변화를 민감하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음을 알게 되어 뇌의 생체신호 정량분석을 위한 전문적인 연구에도 참여하였습니다. 이 연구를 하다보니 다학제간 융합연구가 중요함을 깨닫고, 대학원 과정에 융합학문 과정인 ‘컴퓨터의학’ 및 자연과학대학, 공과대학, 의과대학, 간호대학 등 다양한 분야의 교수님들과 함께 정부에서 지원하는 BK(Brain Korea)-21-plus 대학원교육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시스템 헬스융합과정’에도 참여하여 융합연구분야에서의 교육과 연구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Q 교수님께서는 지난 5년간 세계 뇌 기능 매핑 학회(OHBM)의 ‘다양성 및 포용성위원회’ 특별위원으로 활동하시면서 다양한 성과를 거두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계 뇌 기능 매핑 학회와 다양성 및 포용성 위원회에 대해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A 네, 세계 뇌 기능 매핑 학회(OHBM)는 사람의 뇌의 해부학적·기능적 연결성 이해도 증진을 위해 1995년에 설립되었습니다. 이후 신경과학, 뇌과학, 뇌영상 및 임상영역과 뇌인지 분야 연구자들이 모여 사람의 뇌 각 영역이 어떻게 활성화되어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지를 첨단시간영상으로 지도화하는 “뇌기능 매핑” 연구를 통해 미지의 영역이자 차세대 블루오션인 뇌과학 연구 발전에 중요한 이바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양성 및 포용성위원회(Diversity & Inclusivity Committee, DIC)”는 뇌과학 분야에서 소외받는 계층을 대변하여 누구나 뇌과학 연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독려하는 위원회입니다. 지난 5년간 DIC의 TF member로 참여하면서, 특히 여성과 아시안같이 소외된 계층의 과학자를 육성하고 전세계 어린이들을 위한 뇌교육 자료를 배포하는 등 과학계에서 아시아 여성으로서 다방면으로 노력해왔습니다. 지난달에 열렸던 2021 OHBM 학회 중에는 한국어와 영어로 제작된 어린이들 대상 뇌 관련 교육자료를 만들어서 배포하고 Roundtable Session의 좌장으로 전세계 어린이들에게 실시간으로 질의응답을 받는 시간을 가져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이화여대 의과대학 학생들도 함께하여 세계 학회에서 아시아 여성으로서 참여하는 뜻깊은 경험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Q 과학기술계 여성과 소수민족 연구자들이 차별받지 않기 위해 어떤 노력이 행해져야 할까요?

A 과학연구 분야는 혁신적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기존 지식과 고정 관념에 지속적으로 도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성과 소수 민족, 문화적 소수자 및 장애인에 대해 체계적인 차별이 존재하며, 승진, 출판을 비롯한 일반적 가시성에 있어 배제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아시아계를 향한 증오범죄같은 일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전세계 연구자들은 소외된 과학자를 육성하고 다양한 역할 모델을 만들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서로 협력하여 이러한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여성이면서 아시아인으로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분야를 앞서가는 실력을 겸비하여 내실을 다지고, 내면의 목소리를 분명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하며, 언어나 문화적 장벽을 뛰어넘기 위한 무한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또한,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스스로 빠른 정보를 습득하고, 특히 빠르게 변화하는 과학기술계의 발전을 인지하며 그 중심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활발한 인적, 사회적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마지막으로 학생들에게 특별히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신가요?

A “Follow your own vision!” –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한 선배로서 후배이기도 한 학생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의학은 특히나 더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병원에서 임상 의사로서의 트레이닝을 마친 후 전문의로서 기존의 고식적인 진단 치료 방식으로만 진료하던 시대에서, 이제는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 디지털 전환과 빅데이터 시대의 회오리 바람이 불어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영역에서 우리의 전문성을 계발할 수 있으므로, 많은 정보를 접하고 실제로 경험하면서 새로운 길을 개척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남들과 다른 길을 걸을 수도 있으나 두려워하지 말고 스스로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계속해나가도록 조언하고 싶습니다.

(의예과 1학년 이예린 기자)

동문소식 | 임석아 교수님 인터뷰



임석아 교수님(서울의대 혈액종양내과)은 이화의대 40회 졸업생으로 2003년부터 서울의대에 재직하시면서 우리나라에 임상시험 시스템 도입을 주도하였으며 2019년 여성 최초의 서울대 암연구소장으로 부임하여 역임 중입니다. 2020년에는 보령암학술상을 수상하였으며, 지난 5월 졸업 30주년을 맞아 모교에서 이삭 강좌 강연을 해 주신 교수님의 자랑스러운 소식을 전하고 학생들의 진로에 대한 조언을 듣고자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Q 2019년에 최초의 여성 서울대학교 암연구소장으로 부임하였습니다. 암연구소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연구소장으로 부임하게 되신 소감 부탁드립니다.

A 서울대학교 암연구소는 1963년에 우리나라 최초로 설립된 암 연구소로 암에 관한 의학, 분자생물학, 병리학, 분자 영상 및 핵의학, 암의 치료 및 예후 예측 관련된 연구주제에 관하여 분자생물학, 기초의학, 예방의학, 임상의학 연구자들이 다학제적인 연구를 시행하는 실험실과 한국 세표 주 은행 및 암관련 벤처 기업이 있는 연구소입니다. 지난 17년간 암연구소의 소장을 맡게 된 것은 암연구소를 위하여 봉사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암 중개연구를 위하여 글로벌 암 연구 기관 및 글로벌 제약사의 연구소, 바이오벤처와 함께 개방형 플랫폼으로 innovative collaboration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자 하며 글로벌 연구 기관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Q 교수님께서 우리나라의 임상시험 시스템의 기반을 다지는데 큰 역할을 하셨는데 임상시험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항암신약 개발에서 임상시험을 통한 약제의 적정 용량 및 투여 일정 결정과 효과 규명은 암 환자 치료를 발전시키는데 필수적이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효과적인 임상시험을 디자인하기 위하여는 분자생물학적인 지식을 가진 임상 연구자가 신약을 개발하는 기초 연구자들 및 글로벌 제약사와 긴밀한 상호협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고, 적절한 환자 군에서 적절한 표적치료제를 효율적으로 임상시험을 시행하여 환자에게 가능한 빨리 혜택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연구자이자 교육자로서 다양한 일을 하고 계신데 궁극적으로 실천하시고자 하는 비전이나 목표에 대해 나눠주실 수 있나요?

A 네, 의사 과학자로서 연구한 것을 바탕으로 궁극적으로는 암 환자의 삶의 질 향상과 생존기간 연장이 목표가 되겠습니다. 글로벌 연구자들과 함께 환자들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는 암 중개연구 및 임상시험을 진행하며, 우리나라 후배들도 함께 글로벌 임상시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표적 치료제를 이용한 전임상 연구에서 조기 임상시험을 연결하여 연구할 수 있는 암중개연구자와 의사과학자, 임상종양학자 교육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Q 의과대학 학생들 중에도 진로에 대해 막연한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본인의 흥미를 발견하고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기회를 얻기 위해 후배들이 가졌으면 하시는 자세나 덕목이 있으실까요?

A 이화의대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것에 감사하고, 현재 주어진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이를 적용할 수 있는 안목을 기르길 바랍니다. 여기에 진취적인 사고와 창의적인 생각을 더하면 더욱 훌륭한 의학자 혹은 의사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꾸준히 성실하게 실력을 쌓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실력 있는 학생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기회가 자신의 능력을 펼칠 행운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향후 진로에 대한 고민이 있을 때 선배나 선생님께 자신의 생각을 터놓고 상담한다면 방향 설정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Q 진로를 탐색하거나 다양한 경험을 하는 데 도움이 되었던 교내 활동이 있으신가요?

A 예과 때부터 친구들과 Study 활동을 하며 함께 전공 과목 공부를 했던 것과 방학 때 생물학 교수님의 동물실험을 도와드리며 생물학이 의학에 접목되는 현상을 경험했던 일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본과 3학년에 각 과 실습을 하면서 담당 환자 배정을 받아 직접 환자 증례와 교과서를 맞추어 보며 진단과 치료에 접근해가는 교육과정이 의대 교육의 장점이라 생각했습니다. 방대한 양의 의대 공부를 하다 보면 심적으로 힘들 때가 있었는데, 사진반 친구들과 함께 직접 찍고 인화한 사진으로 전시회를 준비하며 스트레스를 해소했던 추억이 있습니다.

Q 코로나19 상황으로 교류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저희 학생들에게 동료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강조해 주시고 격려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친구들과 함께 심리이론, 정치이론 등의 교양수업 내용을 실생활에 적용하며 분석해보았던 경험이 의사, 의학자, 리더로서 가져야 할 덕목에 대하여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동기들과 동반자로 의지하며 함께 성장하자는 태도가 많은 도움이 되었고, 전공의 수련 시기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동료 친구들과 함께 고비를 넘겼던 경험은 이화의 나눔과 섬김 정신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대면으로 만나지 못하더라도 화상 회의 기능을 통해 서로 얼굴과 표정을 보면서 공통의 목표를 만들어 '함께' 진행해 보면 동료애를 느낄 수 있을 것 같아 추천 드립니다.

Q 마지막으로 전문 분야의 최전선에 계신 선배로서 훌륭한 의사, 연구자를 꿈꾸는 후배 학생들에게 격려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저는 수줍음을 타는 학생이어서 제 의견을 이야기하기 위하여는 몇 번을 생각하고 연습한 뒤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루고자 하는 꿈을 구체적으로 이루어 가기 위해 장점을 살리고 단점은 개선하고, 기회가 왔을 때 도전할 수 있는 실력을 배양하며, 섬김과 나눔 정신으로 함께 성장하는 꿈을 키워 가시길 바랍니다. 과학 기술이 발달할수록 사람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중요해질 것이고, 이화 안에서 성장한 창의적인 생각과 따스한 마음이 여러분들을 키워 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의예과 2학년 이은우 기자〉



특집기사 | ESAC강좌: 임석아 교수의 "Explore together for cure and care"



올해 첫 ESAC강좌는 임석아 교수(서울대 혈액종양내과)의 강연으로, 5월 12일(수) 오후 5-6시에 의과대학 마곡 캠퍼스 계림홀 & ZOOM Online을 통해 진행되었다. 임석아 교수는 본교 의과대학 40기 졸업생으로, 현재 서울대학교 암연구소의 소장으로 재직 중이며 서울대학교 연구업적 우수교원으로 선정, 암 관련 국제 잡지에 40여 편을 게재하였다. Ewha Social Active Communication의 약자인 ESAC 강좌는 매년 의대 학생들의 동기부여와 목표의식 함양을 위해 개최되었는데, 이번 임석아 교수의 강좌는 Create a history of hope with the spirit of serving and sharing! "Explore together for cure and care"라는 주제로, 학생들에게 큰 귀감이 되었다. 임석아 교수는 강연 중 "인생의 갈림길에서 어느 길로 가야할 지를 고민할 때에 SWOT 분석을 해야한다"라고 조언하였다. 이는 강점(Strength), 약점(Weakness), 기회(Opportunity), 위협(threat)을 각각 점검해 보는 것으로, risk-taking을 어느 정도 감수하게 되는지를 고려해야 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또한 힘든 의과대학 생활을 이겨내기 위해 교우 관계를 큰 원동력으로 꼽았다. "경쟁자가 아닌 동반자로서 바라보아야" 함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또한 "의학이라는 학문은 배운 것을 그대로 실천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학문"이므로, 친구, 가족과의 의사소통 외에도 이화의 인재상인 THE 인재(주도, 지혜, 실천)의 주제에 따라, 혈액종양내과를 선택한 후의 전공의 수련과정,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에 유학을 가셨던 경험, 살아오신 길 등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다. 강연의 후반부에는 임석아 교수의 전공분야인 유방암에 관하여 강의하였는데, 유방암은 한국 여성 발병 1위인 암으로, 우리나라에서는 40-50대에 가장 많이 발병되는 특징이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유방암 사망률이 증가하고 있어, HR+, HER2+, TNBC 유방암 각각에 대해 설명 및 치료 방법 등을 소개하였다. 임석아 교수는 학생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각각의 케이스들과, 임상시험 실시, 경과 등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설명했다. 그는 "오직 연구를 위한 연구가 아닌, 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연장시키기 위한 연구를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러한 가치관들을 통하여, 10여 년간 재직중인 서울대학교 암연구소 학술부장 중 최초의 여성 소장이 되었고, SNU 10-10 연구로도 선정

되었다. 연구나 행정을 막론하고, 긍정적인 생각, 열린 마음, 상호 존중, 활발한 의사소통 등은 학생이 가져야 할 기본 덕목이라고 할 수 있다. 임석아 교수는 강의 말미에 "환자를 볼 때에는 환자의 생각을 듣고 함께 고민해야 하며, cure는 완벽히 못하더라도 care는 할 수 있다"라고 당부하였다. 강의를 마친 계림홀에는 의학과 2학년 학생들의 높은 수준의 질문들이 끊임없이 이어졌다. 그중 '임상 연구가 어떻게 주는 연구가 되었는가'라는 질문에, 임석아 교수는 "영국의 아스트라제네카 등의 제약회사들에서는 연구팀이 굉장히 고도화되어 있으며, 의사가 포함되어 있는 제약사의 연구 팀에 직접 제안하거나 연구자 주도 임상을 진행할 수도 있고, global expert meeting에서 다양한 전문가들과 의견을 주고받으며 새로운 연구를 제안해볼 수 있다"라고 답했다. 주도적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실력을 배양하고 코어에 들어가야 의견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이다. 또한, "혈액종양내과에서 안 좋은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을 텐데 가장 어려웠던 순간은 언제였느냐"라는 질문에, 교수는 서울대병원 완화 호스피스 실장을 맡으면서 '임종을 어떻게 알리는가'에 대해 깊게 생각해 보게 된 경험을 나누었다. "병원에서는 의사가 혼자서 아닌, 치료사, 간호사, 정신분석가 등의 사람들과 팀을 이루게 되며, 무엇보다 환자의 마음을 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하였다. 이외에도 "치료를 거부하는 환자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가정이나 사회환경이 매우 중요하며, 결국 선택은 환자의 몫이다"라고 답하였다. 첫 번째 이삭 강좌가 끝난 후에는, 임석아 교수를 포함하여 본교 의과대학 40기 졸업생들의 의과대학 졸업 30주년을 기념하여 의과대학 발전기금 전달식이 이어졌다. 전달식에는 한재진 의과대학 학장님을 포함하여 40기 동창회장님, 의과대학 교무부학장을 맡고 있는 정성애 교수 외 40기 졸업생 선배님들께서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었다. 교내외로 사회의 각계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40기 선배님들께서 의과대학 학생들과 후배들을 위해 3000만 원의 발전기금을 전달하였다.



〈의학과 1학년 권나현, 의예과 1학년 이예린 기자〉



특집기사 | 이화의대 ESAC강좌: 김형석 교수님 "산다는 것의 의미"란?



올해 두 번째 ESAC(Ewha Society Active Communication) 강좌에는 윤동주 시인, 김수환 추기경과 동문이며, 이 시대의 지성인으로 존경받는 김형석 교수님(연세대학교 철학과 명예교수)께서 본교 의과대학을 방문하였다. 5월 26일(수) 오후 5-6시에 의과대학 마곡 캠퍼스 계림홀 & ZOOM Online에서 '산다는 것의 의미'라는 주제로 의학과 1,2학년 학생들의 열띤 참여 속에 진행되었다. 김형석 교수님은 "유명한 농구선수들도 26살, 28살이 되면 은퇴한다는 소식을 듣고, 정신적으로 늙는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았다며 사람들의 욕심이 늘지 않고 오래 사는 것인데, 이는 가장 큰 축복 중 하나이다."라며 '정신적 늙음'에 대한 화두를 던지며 강의를 시작하였다. 교수님은 인생을 되돌아보았을 때 느꼈던 점들을 순서대로 이야기해 주셨다. "처음 연세대 교수로 부임했을 때가 34살이었는데, 선배 교수들이 회갑, 정년을 하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오래 한다고 생각했었다. 그런데 또 열심히 뛰다 보니 회갑이 되더라. 주변에서는 '건강은 괜찮으신지, 무엇으로 소일하시는지'를 묻지만 전혀 늙는다는 것을 몰랐다. 65세에 정년을 하게 되면 사회에서의 역할이 없어져서 가정에만 있게 되는데, 60세에서 65세까지 일을 하니 힘들지 않았다. 62세 봄 학기를 하버드에서 보냈는데, 종강식에서 다른 신학과 교수가 65세에 처음 와서 73세까지 일하고, 또 강의하겠다는 포부를 듣게 되었다. 그래서 저도 연세대에서 정년하고 나서도 이제 사회에서도 나가 일할 거라고 큰소리를 떠들며 떠났었다.(웃음)"라고 하셨다. 교수님께서는 여전히 공부하고, 일하고, 강연하고 작가 생활을 하면서 75세쯤 이르러 정신적으로 늙고 있다는 것을 느끼셨다고 한다. 이후 각별히 우정을 나누는 철학계의 원로 교수님들인 안병욱, 김택일 교수님들과 '인생에서 가장 보람 있는 황금기가 언제인가'에 대한 주제로 많은 대화를 나누셨다고 한다. 선진국에서는 50세 정도로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성숙했다, 철들었다'고 하려면, 즉 스스로에 대한 믿음을 온전히 가지려면 60세는 되어야겠다고 말씀하셨다. 연세가 90세가 넘었을 때부터 신체적으로 노화가 진행되고 힘이 없어지는 것은 많이 느껴지지만, 정신적으로 무게가 있는 좋은 책들은 전부 70대에 집필한 책들이며, 아직도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에 투고하는 글들이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어 보람차다고 말씀하셨다. 60대부터 기억력이 약해지는 것은 맞지만, 사고력은 이때부터 성장하기에 아주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하셨다. 그리고, 교수님께서는 학생들에게 앞으로 다음과 같이 힘써줄 것을 당부하였다. 첫째는 '끊임없이 공부하라'는 말씀이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 없이, 60세 즈음에도 독서를 통해 나 자신을 키워나가야 한다고 하셨다. 역사적으로 인류가 오늘까지 번영하는 데 기여를 했던 5개의 나라(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 일본)의 공통점은 100년 이상을 독서한 나라들이라며, 인문학이 발달한 나라가 정신적으로 성장할 수 있음을 강조하셨다. 예전

에 대기업 연수에서 강연을 할 때에도 '4년간 대학생활을 하면서 인생을 키우는데 도움이 된 고전 도서'를 물어봤을 때 대부분 2권 이내였다고 하셨다. 둘째로는, 60세 이후에도 행복하기 위해서는 대학시절의, 혹은 젊었을 때의 취미활동을 살려야 한다고 하셨다. 교수 정년 이후에 서예 취미활동을 통해 다시 삶을 활기차게 사는 제자들을 보며, 행복의 의미를 다시 느낄 수 있었다고 하신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도 보람 있는 일을 선택하기를 바란다고 하며, 의대 학생들에게 '의사'라는 직업은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고 하셨다. "처음 연세대에 부임하여 가난했던 시절에는 강의료가 높은 곳에 주로 강의를 나가고 했었는데, 나중에 안정되어 기업연수 대신 고등학교 선생님의 기념회에 초청받아 가게 되었을 때 진정으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가를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다"라며 "100가지 일도 목표는 결국은 하나로, 인간은 결국 인간답게 살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다. 그러한 관점에서 의사는 다른 사람들의 삶을 행복하게 바꾸는 사람들로, 보람 있는 일이라고 하셨다. 교수님께서 병이 있었을 때 동네의 이비인후과에 갔었는데, 의사 선생님의 설득 끝에 많은 연세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얻어 수술을 잘 마치셨으며 완쾌 후 기뻐하시는 주치의 선생님을 보고 '이분은 환자를 사랑했구나'고 느끼셨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지금 교수님께서 가장 바라시는 것은 훌륭한 제자들이 많이 나와주는 것이라고 동아일보 인촌상 수상 시에도 제자와 같이 받은 사실이 제일 기뻐했다고 하셨다. 제자들이 인생에서 고민이 있었을 때 찾아와 '우리 교수님이 어떻게 했었을까'를 자문한다고 말해주었는데, 많은 사랑을 받아서 감사하다고 하셨다. "긴 세월 끝에 '사랑 있는 고생'을 하는 것이 행복하며, 혼자서 일하는 것보다 같이 가는 친구들과 일하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었다. 나보다 사회를 위해 봉사하며, 학문을 위해 노력한 사람들은 결국 더불어 남게 된다"라며 학생들에게도 지금 당장 공부와 병원생활이 힘들 수 있지만 더불어 함께 생활하는 지금 순간들을 행복하게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하였다. 이후 의학과 1학년 학생이 "교수님께서는 인생의 어려운 순간들에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넘어갈 수 있었는지 궁금하다"라고 질문을 이어갔으며, 이에 교수님은 알프스의 용프라우를 등산할 때의 모습에 비유하며 "산을 오르면 주위 모습이 계속 변하는데, 그 과정을 다 행복하게 느낄 수 있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는 의사는 직업은 젊었을 때는 피곤하고 고통스럽기도 했지만, 그 과정들에 의미가 있었다. 의사는 직업은, 환자들에게 기여하고 감사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기에 고통과 보람이 함께 따르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다. 이번 강연에 대해 한재진 의과대학 학장은 "김형석 교수님은 우리나라의 근현대의 100년 중인으로 한국의 가장 커다란 어른으로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고 생각하는 분이신데, 오늘 이화의대에 오게 된 것이 너무나도 영광"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또, "교수님의 100세 인생에서 직접 경험해보신 내용들을 귀담아들을 수 있었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을 일관되게 해오신 분으로 다음 세대를 위해서 헌신하시는 분이다"라고 학생들에게 말씀하셨다. 이화의대 학생들을 위해서 오늘 소중한 시간을 내주시는 김형석 교수님께 감사를 표하며 박영미 의예과장님과 학생 2명이 감사의 연주를, 강의에 참여한 의학과 1,2학년 학생들은 '스승의 은혜'를 제창하며 마무리하였다.

〈의학과 1학년 권나현 기자〉

교수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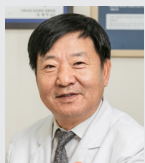
정년 퇴임 교수

연구비우수 수상

2021. 8. 31일자



김형래(생화학)



김종오(정형외과학)

2021-1학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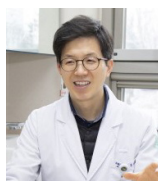


하은희(환경의학)

신임 교수(2021년도 임용)

성명	소속	성명	소속
한승호	해부학	박인	정형외과학
조수영	마취통증의학	김명	비뇨의학
송도경	내과학	조수범	영상의학
류정화	내과학	양서연	재활의학
박소정	내과학	이재희	응급의학
김건하	신경과학	심소연	소아과학
노경태	외과학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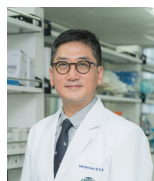
내과학교실 문창모 교수, 신진 이화펠로우 선정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문창모 교수가 2021학년도 '신진 이화펠로우'에 선정됐다. '신진 이화펠로우'는 최근 5년간 국제 특A급 이상 논문을 여럿 발표하는 등 탁월한 연구 실적을 거둔 신진 교수에게 연구 장려금을 지원하는 등 연구 및 학문 활동을 장려하는 제도다. 지난 2014년 3월부터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교수로 재직 중인 문 교수는 최근 5년 간 10편 넘는 국제 특A급 논문을 발표했고 국내 특허 13건을 출원했다. 대한장연구학회에서 페링 다기관 연구자상 및 여러 차례 연제상을 수상했고, 유럽소화기학회(United European Gastroenterology)에서 구연상을 수상하는 등 국내외 학회에서 다양한 연구 성과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문 교수는 대장질환(대장용종·대장암, 염증성장질환, 기능성장질환) 및 치료내시경을 전문으로 환자 진료와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 문 교수는 특히 대장암 줄기세포 및 엑소좀 분석을 통해 항암제 내성과 전이를 억제하는 방법을 밝히고, 엑소좀, 마이크로바이옴을 활용해 염증성장질환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치료기법을 개발하는 등 대장암, 염증성장질환 치료와 관련된 연구들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문 교수는 이번 '신진 이화펠로우' 선정에 감사를 표하며 "큰 고통을 겪는 소화기 질환 환자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희망을 줄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찾을 때까 지 한 걸음 한 걸음 정진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분자의과학교실 조인호 교수,
범부처 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 초대 사업단장 선임

의과대학 분자의과학교실 조인호 교수가 지난 3월 1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범부처 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 초대 사업단장으로 선임되었다. 범부처 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은 재생의료분야의 핵심, 원천기술 확보 등 기초연구를 토대로, 줄기세포, 유전자, 조직공학, 재생의료 등의 기술을 활용, 개발된 첨단치료제 및 치료기술의 임상 적용 등 전주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7월부터 2030년까지 10년간 총 5955억 원이 투입된다. 조인호 초대 사업단장은 앞으로 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을 이끌어 질병 극복과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 기획, 평가·관리, 사업단 운영, 연구성과 확산, 타 사업과의 연계 등 사업화 지원을 총괄하게 된다. 사업단장 직무 수행은 이달 중순 사업단 법인설립에 맞춰 시작될 예정이며 임기는 3년이다. 평가를 거쳐 2년 더 연장할 수 있다. 조인호 단장은 "첨단재생의료와 관련된 혁신, 원천 과학기술을 발굴하고, 기술 가치를 제품화와 임상 성공과 연계해 환자 연구자 모두가 만족하는 성과를 만들도록 지원하겠다"며 "국산 첨단재생의료제품의 글로벌 시장 진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인호 단장은 이화의료원 서울병원 첨단의학생명연구원장과 질병관리본부 생명과학센터장, 생명약학연구회장, 한국조직공학재생의학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재생의료 분야 임상시험과 사업화, 조직 관리 분야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았다. 또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펀도줄기세포 연구의 권위자로 160여편의 SCI급 국제논문 발표와 20건의 특허를 등록하는 등 한국의 생명약학 연구발전에 크게 기여해왔다.

해부학교실 한승호 교수,
신임 이대서울병원 첨단의학생명연구원장 선임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의료원장: 유경하)은 4월 16일자로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해부학교실 한승호 교수를 이대서울병원 첨단의학생명연구원 신임 연구원장에 임명했다. 한승호 신임 첨단의학생명연구원장은 가톨릭대 의대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의학 석사, 박사를 취득했다. 가톨릭대 의과대학과 중앙대 의과대학 교수를 역임한 한 연구원장은 대한해부학회(KAA) 이사장, 국제해부학회(IFAA) 부회장, 2024 국제해부학회 학술대회 대회장 등을 맡아 학회발전을 이끌고 있다. 한승호 이대서울병원 첨단의학생명연구원장은 "의학의 발달로 개인 맞춤 의학을 추구하는 시대인 만큼 이에 대한 연구 활성화가 중요하다"면서 "연구와 교육의 장을 마련하고 여러 연구 사업이 활발히 진행될 수 있는 제도적인 기반과 생태계를 조성해 이대서울병원이 차별화된 미래경쟁력을 보유한 병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한편 이화의료원 첨단의학생명연구원은 교육·연구·진료·산업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글로벌 첨단 융복합 헬스케어 R&D HUB로서 질병 치료에 실질적인 역할을 하는 임상의학과 기초의학의 중개연구 활성화 및 차세대 보건 의료 R&BD 임상과학자 육성에 힘쓰고 있다.

의과대학 기금 안내 및 약정현황 명단

1. 의과대학 발전기금 (2021.01.01. ~ 2021.06.30. 기준 약정일순)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은 혁신적인 교육 과정 개발, 장학 관련 사업, 교수의 교육 및 연구 활동 지원 등 교육환경 조성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많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회원명	약정금액	회원명	약정금액
의과대학 20회 동교회	10,000,000원	의과대학 40회 동교회	30,000,000원
우리들내과의원 김지선 (의학 88졸)	1,000,000원	부천안과의원 최인숙	10,000,000원
신애선 (의학 00졸)	2,400,000원	정혜선 (의학 05졸)	3,600,000원
오윤석 이대서울병원환자	50,000원	이경혜 (의학 71졸)	5,000,000원
김난희 (의학 71졸)	10,000,000원	우명숙 (의학 71졸)	5,000,000원
김화숙 (의학 71졸)	10,000,000원	김대봉 (의학 71졸)	1,106,801원
김정자 (의학 71졸)	2,213,603원	박정옥 (의학 71졸)	2,213,603원
송덕자 (의학 71졸)	1,106,801원	이순희 (의학 71졸)	22,136,025원
이안숙 (의학 71졸)	1,106,801원	이정혜 (의학 71졸)	3,320,404원
장신옥 (의학 71졸)	1,106,801원	채은화 (의학 71졸)	5,534,006원
최옥경 (의학 71졸)	1,106,801원	최인규 (의학 71졸)	4,427,205원
최정교 (의학 71졸)	1,106,801원	-	-

2. 기타 발전기금 및 장학기금 (2021.01.01. ~ 2021.06.30. 기준 약정일순)

기금분류	기금명	기부자	약정금액
장학기금	심현 의대우수논문상 기금	심현 (의학80졸)	30,000,000원
장학기금	의과대학 사랑실천기금	황보권 (이대목동병원 정형외과전공의)	2,000,000원
장학기금	호삼수 장학금	호삼수 (의학 63졸)	10,000,000원
장학기금	연구활동 장려 장학금	윤주천 (의학과 교수)	3,900,000원
장학기금	연희 장학금	주정신건강의학과의원 주문희 (의학 70졸)	12,000,000원
장학기금	정성애 의학 장학금	정성애 (의학 91졸)	90,000,000원

의과대학 발전기금 안내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은 혁신적인 교육 과정 개발, 장학 사업, 교육 및 연구 활동 지원 등 최고 수준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디딤돌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많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제공하는 발전기금 후원자 예우

공통 예우

- 후원 감사선물 및 카드 증정
- 모바일 뉴스레터/생일축하카드 발송
- 기부자 명예의 전당(디지털월)에 이름남김
- 이화달력 및 성탄카드 발송(총 약정액 3백만원 미만의 경우 1년간, 3백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의 경우 3년간 제공합니다.)
- 이화소식/대외협력처 연간보고서 발송
- 후원자 ID카드 발급: 교내기관 및 편의시설 이용 시 할인혜택 제공

- 교내시설: 생활협동조합 기념품샵(5%), 박물관 기념품샵(10%), E-feel(5%), 도예연구소 작품(10%), 출판문화원 도서(5~10%), 이화인의 나눔가게(10%)
- 편의시설: 케세이호(10%), 닥터로빈(5%), 교보문고(5%), Soho&Noho(15%), 구내안경점(10~20%), 푸레쥬르(10%), 카페 블루팻(5%)

※ 문의: 이화여자대학교 대외협력처 **Tel** [02]3277-6827,2928,2927 **Fax** [02]392-3473 **E-mail** ewha21@ewha.ac.kr

의과대학 행정실 **Tel** [02]6986-6004 **Fax** [02]6986-7000 **E-mail** mediewha@ewha.ac.kr

※ 후원자는 의과대학과 이화여자대학교의 예우를 모두 받으실 수 있습니다.

편집위원

편집위원장 우소연(기획 · 정보관리부장)

편집위원 임재향(기획 · 정보관리부 차장), 정최경희(기획 · 정보관리부 차장), 안효진(의과대학 행정실)

학생기자단 방윤지(의학과 3학년), 권나현(의학과 1학년), 이은우(의예과 2학년), 이예린(의예과 1학년)

디자인·인쇄 정디자인

※ 소식지에 게재할 여러분의 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 소식지를 우편 또는 메일로 받아보고 싶으신 분께서는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mail: mediewha@ewha.ac.kr **Tell:** 02.6986.6007

의과대학 마곡캠퍼스



의학과(마곡), Esther Building



의학과(마곡) 1층 로비



의학도서관